

## 재생지는 생명의

### 또 다른 이름



이상문 · 소설가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전무이사

종이를 만들 때 펄프와 폐지를 주원료로 쓴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을 쓰기도 하고 서로 편하게 섞어 쓰기도 한다. 재생지는 폐지를 어느 정도라도 펄프와 섞거나, 순전히 폐지만을 써서 만든 종이를 말한다. 펄프는 반드시 생나무를 베어서 만든다. 그리고 폐지는 폐기된 종이(종이제품)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이를 만들 때 폐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산과 들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당연히 폐지를 모아서 재이용하는 목적은 환경보호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폐지를 모으는 일 자체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쓰레기와 함께 모은 폐지를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은, 땅과 공기의 오염을 방지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산과 들의 나무를 그만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석삼조를 넘어서 일석오조쯤의 이익을 주는 일이 바로 폐지의 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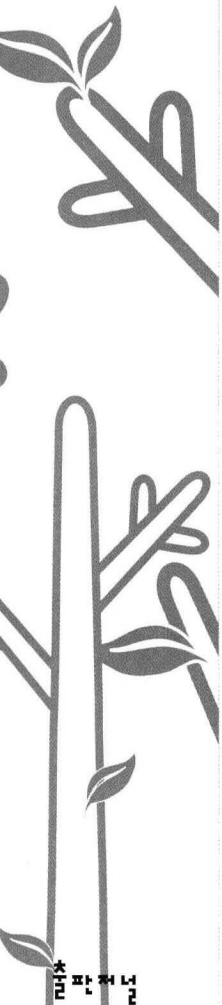
우리가 재생지를 생산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뜻이 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종이는 모두 981만 2천 톤이었다. 이 가운데 215만 9천 톤(22퍼센트)을 뺀 나머지 765만 3천 톤(78퍼센트)이 재생지였다.

이 사실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재생지 생산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지 가운데, 우리가 특히 알고 싶은 인쇄용지를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모두 229만 5천 톤의 인쇄용지 가운데 고작 13만 7천 톤(5.9퍼센트)만이 재생지인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질지와 일부 복사용지만 재생 인쇄용지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1992년 말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재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제조업체에 폐지를 비롯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의무화해 놓고 있다.

인쇄용지 가운데 백상지와 중질지는 폐지(국산)를 30퍼센트 이상, 아트지는 1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야 재생지라 할 수 있으며, 해마다 제조업체별로 폐지의 이용률을 설정해서 정부에 보고한 뒤에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법률 내용과 시장 상황과 업계의 현실이 서로 맞지 않다는 데 있다. 2004년부터는 종이의 관세가 0퍼센트로 내려가서 국가간의 보호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재생지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국산(국내에서 수집된) 폐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 내용이 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고, 폐지를 이용해서 만든 재생 인쇄용지는 펄프만을 사용해서 만든 인쇄용지에 비해 소비자에게 품질과 위생적인 면에서 2급품으로 받아들여지는데도 만들 때 원가는 5퍼센트 이상 더 먹힌다는 현실이 업계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폐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인쇄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문화용지 속에 들어가는 신문용지도 있고, 산업용지인 백판지·골판지원지·크라프트지 등도 있고, 화장지며 박엽지 등도 있다. 따라서 폐지를 구태여 인쇄용지 생산에만 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업계는 폐지를 써서 만들어도 상품의 성가에 지장이 없고, 원가도 올라가지 않는(도리어 떨어질 수 있다) 지중에 더욱 많이 쓰고, 더욱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쉬지



이 글을 쓴 이상문은 장편 《황색인》 《자유와의 계약》 《계단 없는 도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등 다수와 창작집 《살아나는 필》 《영웅의 나라》 《은밀한 배반》 등이 있다. 대한민국문학상, 운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현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전무이사이자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이다.

않고 힘들여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경보호운동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금껏 생각해 왔던, 재생 인쇄용지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인쇄용지를 만들 때 폐지를 쓴다면 생산원가 관리와 판매활동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며, 구태여 그렇게 폐지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종이를 만들 때 폐지는 얼마든지 쓰이므로 폐지 이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지업계에서는 폐지 1톤을 이용하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지난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들 때 이용한 폐지는 모두 753만 8천 톤이었다. 이 가운데 국산이 621만 3천 톤(82.4퍼센트)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려 1억 5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지 않도록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폐지를 거리의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40대 이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갱지更紙’라는 낱말을 들으면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들 것이다. ‘국민학교’ 시절에 사용했던 연습장이며 공책은 물론 각종 부교재들이 다 갱지로 만든 것들이었으니까. 질이 나쁜 탓에 웬만큼 글씨를 잘 써도 모양이 나지 않았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곧잘 찢어져서 속을 태우게 하던 그 종이. 하지만 몇 년씩 사용하다 보면 친해지고 정이 들기 마련이던 그 종이.

갱지란 낱말의 뜻을 그대로 풀어 보면, ‘다시 살아난 종이’라는 뜻이 된다. 낱말 뜻 그대로, 갱지는 못 쓰게 된 종이(폐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종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우리 언저리에서 갱지라는 낱말이 사라져버렸다. 아마 20대 이전 사람들에게 갱지라는 낱말을 썼다면, 따로 설명을 해줘야 비로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갱지는 곧 전량 폐지만을 이용해서 만든 재생 인쇄용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토록 재생 인쇄용지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 방식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정부와 국민들이, 지난 1990년대 초까지 재생 인쇄용지의 사용을 곧 검소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환경보호운동의 역군으로 자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폐지 수집 증대와 재생 인쇄용지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큰 비용을 써왔으며, 재생지(인쇄용지 및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의 시장이 하나가 되기 전에 시작된 일이었다.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 산업용 종이의 생산과 사용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 폐지의 이용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결코 폐지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수집해서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명제가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폐지 이용으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폐지의 용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져 왔다.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 사실에 의아해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다. **한글**

